



먹의 재해석 ‘형상 그 너머’

소암기념관 강재희 초대전을 벗어난 자유로운 붓질 등 두 개 공간에 예술 세계 담아 한라산·일출봉 배경 작업도

서귀포 출신 서예가 소암 현중화가 남긴 먹의 향기를 잇고 있는 소암 기념관. 서귀포에 있는 공립 미술관인 이곳에서 옛 그림의 핵심 재료인 먹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펼쳐지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한국화가 강재희 초대전이다.

‘형상 그 너머’란 제목에서 짐작하듯 이 전시엔 사물의 형태보다는 그 내용이나 정신에 관심을 기울인 작품들이 나왔다. 장지에 먹 등을 이용해 전통 회화가 지닌 자연의 이

치와 함축적인 의미, 정신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것들은 먹과 자연의 가치를 격조 있게 전한다.

전시장은 두 개의 서사 공간으로 구성해 작가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작은 드로잉 10여 점을 포함 약 60점에 이른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사군자 중 현자를 대표하는 난초를 중심으로 시각적 형상과 공백의 미를 실험한 ‘묵란(墨蘭)’ ‘산세베리아’를 볼 수 있다. 간결한 형태와 맑은 색채를 통해 자유롭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초(乾草)’도 걸렸다. 두 번째 공간에선 정원을 가꾸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작품들로 꾸몄다.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작업한 ‘아버지의 정원’ 등 제주 전시의 의미를 살리며 관람객들을



강재희의 ‘아버지의 정원-성산일출봉’ (2025).

소암기념관 제공

꿈 많고 행복했던 시절로 이끈다.

고현아 소암기념관 학예연구사는 “수묵으로 대담하게 표현된 묵란과 식물 작품을 통해 전통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붓질의 해방감과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달 11

일 오후 2시에는 작가와의 대화가 열린다. 12일 오후 1시에는 사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화 체험 실기 강좌인 ‘나만의 화분 그리기’를 운영한다.

전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월요일 휴관). 무료. 소암기념관 누리집 참고.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사진에 담긴 제주 풍광 시가 되었다

김형준의 ‘제주, 빛의 시간’ 20여 년 기록 사진시집에 “바쁜 일상 속 작은 섬표를”



“아직 해는 오지 않았지만/ 빛은 이미 와 있다// 파도는 아무 말없이/ 내 발끝을 적시고// 새로운 하루가/ 서서히/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한다”(‘여명이 숨을 고르는 시간’ 중에서). 일출봉을 감싸듯 붉은 해가 솟아오를 무렵에 그리는 거기에 있었다. 눈앞의 장면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기록했고 그날의 여운은 시창작으로 이어졌다.

교직에 몸담았던 김형준 작가가 사진시집이란 이름으로 그같은 여정을 한데 묶었다. ‘제주의 숨’ 출판사에서 펴낸 ‘제주, 빛의 시간’이다.

저자는 20년 넘게 제주 자연을 카메라로 담아 왔다. 그것들은 늘 한자리를 지켰지만 시간과 빛에 따라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시집에는 그중에서 골라낸 한라산, 오름과 바다, 형제섬, 용두암, 섭지코지, 가파도, 비양도, 차귀도 등이 펼쳐진다. 50여 점의 사진은 ‘아침, 마음이 일어나는 시간’

‘낮, 생명이 흐르는 시간’ ‘저녁,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 ‘시간, 그리고 삶의 깊이’로 나눠 50편의 시 옆에 놓였다.

매일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몇 번이고 사계절이 바뀌는 풍경 안에서 저자는 위안을 받는다. “말 대신 기다림을 던지고/ 파도와 조용히 시간을 나누는”(‘바다와의 대화’ 중에서) 모습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잠깐이라도 쉬어 가라고 말한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하루를 바라보는 일, 그 짧은 순간들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책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섬표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선희기자

‘드로잉마실’ 7번째 정기전 12명 참여 섬의 시간 기록

그림으로 떠나는 동네 산책. ‘드로잉마실’은 그런 의미를 담아 붙인 이름이다. 오래된 골목, 사라져 가는 풍경, 반복되는 일상 속 장면들을 드로잉으로 기록해 온 ‘드로잉마실’ 회원들이 7번째 작품전을 열고 있다.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뽕문도 뮤지엄(제주시 연삼로 316 2층).

‘섬에 머문 시간’이란 제목을 단 이번 전시에는 40대부터 70대까지 회원 12명이 따로 또 같이 완성한 드로잉을 펼쳐놓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대흘·와산 마을을 함께 걸으며 자료를 수집하고 드로잉한 작품 한편에 회원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대상을 정해 그린 작품들이 걸렸다. 제주에서 살아온 서로 다른 삶의 시간과 시선을 한 곳에 모아 관람객과 공유하는 자리로 개인의 기록이면서 지역의 기록유산이 될 작품들이라고 했다.

민근희 회장은 “여행지로 소비되는 제주가 아닌,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본 제주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전시”라며 전시회로 초대했다. 전시장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선희기자

제주 독서 챌린지 첫 달 4500여 명 몰렸다

16개 지자체 공공 도서관 7월부터 ‘제주독서머니’ 책 읽으면 탐나는전 보상 “지속 운영 책 읽는 도시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놓은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전국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38.5%. 종합독서량은 2.4권이었다. 이는 달리 말해 성인의 비독서율이 61%가 넘는다는 것이다. 제주도 한라도서관에서 도내 16개 지자체 공공 도서관이 운영하는 14세 이상 도민 대상 독서포인트 챌린지 ‘제주독서머니’를 기획한 배경엔 그같은 현실이 있다. 제주에 사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책을 통해 ‘마음 근육’을 키우고 ‘책 읽는 도시’를 함께 실천하자는 취지다.

7월 ‘제주독서머니’ 챌린지가 첫 걸음을 내디딘 가운데 이번 달 참여자가 4563명으로 집계됐다.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통합 모바일 앱에 챌린지를 신청한 인원이다.

8월 한라도서관에 따르면 ‘제주독



제주도 공공 도서관 독서 챌린지 포스터. 한라도서관 제공

서머니’는 도서 반납, 도서관별 추천 도서 반납, 오프라인 출석 체크, 앱 출석 체크, AI 그림책 만들기, 만보계, 포인트 선물 이벤트 등 7개 유형별 달성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주당 적용 대출 권수는 5권으로 도서 반납 2개 유형이 전체 최대 지급 포인트의 50%(6000포인트)를 차지하는 등 가까운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반납하는 독서 활동에 무게를 뒀다.

포인트 지급액은 월 최대 1만원.

다음 달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로 전환되고 연간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챌린지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매월 챌린지 신청은 전월 15~30일 이뤄진다. 다만 향후 참가자 규모에 따라 포인트 적립 유형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억원의 보상을 확보한 한라도서관에서는 시행 첫 달 참여 인원도 고무된 모습이다. 책을 읽으면 매월 포인트가 쌓이는 챌린지에 즐겁게 도전하면서 일상의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도서관 측은 “모바일 앱을 통한 공공 도서관의 독서 챌린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라며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누구나 편하게 공공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는 도민들이 많아지도록 지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 상설 개최된 ‘제주한 국지역도서전’과 맞물려 이번 독서 챌린지가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제주가 책의 힘을 보여주는 중심 도시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 제주여민회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지역작품 초청공모’ 초청작 선정=제주 지역 여성 서사를 발굴·지원하려는 취지로 2021년부터 운영된 비경쟁 공모전. 올해는 김다운 감독의 ‘제주의 시간’ (2025)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비자립로 확장 공사를 주요 배경으로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30대 여성 5명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제주의 난개발과 이에 맞서는 이들의 실천과 연대를 세심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 제6회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꿈나라 수상작 전시=장애 학생과 성인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 감귤박물관과 서귀포시장예인종합복지관의 협업 전시. 올해 공모전에는 학생부 50점,

성인부 90점이 출품됐고 이 중에서도 수상작 40점을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시상식은 첫날 오후 3시 박물관 1층 ‘문화공유공간 월라’에서 열린다. 이때는 축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 노형꿈틀작은도서관 ‘2026 펠롱펠롱 책놀이캠프’=도서관 개관 18주년 기념 책축제. ‘바람의 신 영등’을 주제로 제주어·신화·책놀이가 만나는 가족 축제로 꾸민다.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책놀이 캠프’는 단순한 만들기 체험을 넘어 그림책 속 이야기를 몸으로 경험하는 오감 놀이로 구성했다. 무대 공연, 책 나눔 등도 준비했다. 이달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 열린.

여름 바캉스 특가 여행

주말 1박2일

익산+광주+담양+순창

익산 보석박물관

아가페정원

고스락

담양 소쇄원 & 죽녹원

강천사

메타 프로방스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 광주공항 도착 → 익산 보석박물관 💎 → 중식 🍽️ → 아가페정원 🌸 고스락카페 → 교도소세트장 🏰 석식 🍽️ 광주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 (비용 개인부담)

2일차 조식(호텔식) 🍳 → 담양 소쇄원 🌿 → 죽녹원 🌲 → 중식 🍽️ → 강천사 🏯 메타 프로방스 🏠 광주공항 출발 ✈️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특가**

399.000원

3인1실 **특가**

395.000원

4인1실 **특가**

39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포함) ✈️, 호텔료 🏠, 전일정식사료 🍽️, 입장료 🎫, 차량료 🚗, 가이드비 🧑, 여행자보험 🛡️

출발일: 8월1일, 8일, 15일(단, 3회) *20명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주말 로망스 1박2일 여행

청주+단양+영주+안동

1일차 제주공항 출발-청주공항 도착 →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모노레일포함) → 중식 → 영주 부석사 → 석식 → 월영교 야경 → 안동 호텔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조식(호텔식) → 안동 하회마을 → 부용대 전망대 → 중식 → 안동 중앙시장 → 청주 초정행궁(죽목포함) → 청주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89.000원

3인1실

485.000원

4인1실

48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포함) ✈️, 호텔료 🏠, 전 일일정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8월1일, 8일, 15일(단, 3회) *20명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Since 1996

제주자유여행사

협찬

JEJUair 제주항공

문의

064-744-9111